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열정의 사나이들 마지막 승부

무엇이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 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대망의
결승이 오는 25일 OB구장에서 열린다.
지난 9월23일 47개팀이 참가해 막이
오른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3개월의 대장정 끝에
천왕·지왕·인왕·전남리그 패권을
다룰 8개팀으로 압축됐다.
결승은 오전 8시 화순 에슬레틱스와
화순 NH자이언츠의 전남리그 경

기를 시작으로 인왕·지왕·전남리그
의 ‘마지막 승부’가 이어진다.
화순 야구파크의 기권으로 손쉽게
결승에 진출한 화순 에슬레틱스는
‘막강 화력’의 화순 NH 자이언츠와
한판 승부를 벌인다. 화순 NH 자이언츠는
장성 랜드포스와의 준결승에서
5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13-6의
승리를 장식했다.
‘디펜딩 챔피언’아도니스는
청연한 방병원과 인왕리그 우승을
다룬다. 아도니스는 포프리와의 준결승에

제 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대망의 결승
25일 OB구장서 천왕·지왕·인왕·전남리그 패권 다툼

서 2회에만 13점을 뽑아내는 등 14-6
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청연한방병원은 나이너스를 9-4
로 꺾고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왕리그 결승에서는 디스크스와

세한기업재규어가 맞붙는다.
디스크스는 준결승에서 제일공조를
상대로 21-5의 대승을 거두었고,
세한기업 재규어도 청연한방병원
콜가이스와의 준결승에서 9-3으로

이기며 대회 2연패에 도전하게 됐다.
제2회 무등기 최종전인 천왕 결승
전은 팔도참오리와 자연환경의 대결
이 됐다.
팔도참오리는 준결승에서 만난 준

모터 페가수스를 상대로 10-4 승리를
거두며 결승 무대에 올랐으며, 자연
환경은 허버 베이스볼과의 준결승에서
1회부터 5점을 뽑아내며 11-4로
결승진출을 확정지었다.
우승팀에게는 50만원의 우승상금과
트로피, 우승메달이 수여된다. 준
우승팀에게는 30만원의 상금, 트로피,
준우승메달이 주어진다. 공동 3위
팀에게는 메달과 시합구 1타가 부상
으로 증정된다.
개인 시상도 마련됐다. 우승팀 감독

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10
만원의 상금이 돌아가며, 우수선수
에게는 트로피와 5만원이 상금으로
주어진다.
심판상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10
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협회
와 광주시생활체육회야구협회가 주
관하며, 광주시생활체육회·전남도
생활체육회·KIA 타이거즈가 후원한
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4대 리그 결승 진출팀 각오

전남리그 (화순에슬레틱스 vs 화순 NH자이언츠)



똥심 강한 역전의 명수들 “포기는 없다”

화순에슬레틱스(대표 이형석)
“서로를 믿고 즐기면서 경기를 풀어가겠다.”
화순 에슬레틱스는 지난 2005년 창설돼 8년째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형과 아우들이 어우러진 이들은 8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실력도 자라났다.
결승진출을 기대하며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무난히 목표를 달성
한 이들은 우승컵까지 노리고 있다.
결승에서 만나게 된 화순 NH 자이언츠는 같은 리그에 속해 있는
만큼 잘 아는 상대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팀에 대한 전략보다는 내부
팀워크에 집중하고 있다.
야구 초보 시절부터 함께 해온 만큼 즐기면서 편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똥심’도 화순에슬레틱스의 장점.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경기를
하면서 역전승도 많이 거뒀었다. 포기하지 않은 야구로 마지막까지
즐거운 야구를 하겠다는 각오다. 실력이 부족한 톨타자 김경태가 이
들이 기대하는 결승전 다크호스다.
▲감독 : 이형석 ▲선수 : 박원식, 김성철, 윤관, 김용환, 류세환,
이성원, 이철규, 최주성, 나경호, 손용수, 이상현, 이대수, 이정운, 선
영수, 김경태, 정진수, 이승룡



야구로 똥심 농협인 “부드러움으로 승부”

화순 NH 자이언츠(대표 강영철)
“강하면 부러진다. 부드러움으로 우승에 도전하겠다.”
야구로 똥심 농협인들이 무등기 전남리그 우승을 노린다. 이
들은 야구를 통해 건강과 성취감을 챙기고 새로운 직장문화까지 이
들어가고 있다. 업무적인 부분을 넘어 야구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통
하면서 삶에 활력소가 생겼다.
조화가 NH 자이언츠의 장점이다. 22세 막내부터 51세 말형까지 ‘아
빠와 아들’처럼 다양한 연령이 고루 어울려 가족같은 야구를 하고 있
다. 각기 다른 나이와 모습이지만 노련함과 패기의 조화가 돋보인다.
결승을 목표로 했지만 정상을 눈앞에 두면서 우승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잘 아는 에슬레틱스와의 대결. 만만치 않은 강팀을 만난 만큼
부드러움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강팀을 상대로 강하게
맞붙기 보다는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경기를 하며 좋은 결과를 얻겠
다는 계획이다. 팀의 중심타자로 맹활약하고 있는 강영철의 물오른
타격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감독 : 홍기남 ▲선수 : 정길호, 안상섭, 양진영, 염철용, 문병
관, 문현주, 문병진, 조병현, 김영기, 강영철, 구정철, 윤지훈, 정대일,
김태운, 전운대, 김길수, 김대경, 흥환희



츄츄·단단한 팀워크 “내친김에 우승”

팔도참오리아구단(대표 양준태)
“4강 목표를 넘어 결승까지 올랐다. 이제는 우승이다.”
야구 열정과 매너를 통해 최고의 사회인 야구단을 꾸리고 있는 팔
도참오리아구단.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체육활동을 통해 다양
한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으면서 직장 생활에도 활력이 된다.
이들의 목표는 4강이었다. 강한 팀이라고 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실력. 하지만 집중력 있는 승부로 결승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내친김에 우승까지 노리겠다는 각오다. 매 경기가 쉽지 않았던
무등기, 결승이 그래서 가장 어렵고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 전망이다.
집중력이 이들의 가장 큰 무기다. 매주 진행되는 훈련에 빠짐없이
동참해 ‘일심단결’ 실력을 키워오고 있다.
자연환경은 처음 만나는 상대지만 츄츄한 팀워크로 명승부를 준
비하고 있다.
톨타자 강기석이 전력의 핵심. 1루는 물론 외야까지 맡고 있는 강
기석은 타석에서도 알뜰한 같은 활약을 예고한다.
▲감독 : 이승열 ▲감독 : 양준태 ▲총무 : 박선주 ▲선수 : 송
승철, 김운찬, 오경관, 강기석, 김창호, 양민준, 양명준, 심형호, 손근,
박정일, 김도국, 김경호, 박해원, 문정수, 이선중, 류시후, 김병수



각종 대회 우승 단골 “사회인야구 지존”

자연환경야구단(대표 백규식)
“우승도 전설,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하겠다.”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에 실력까지 겸비한 야구팀 자연환경야구단
이 무등기 정상을 넘는다. 우승을 목표로 출전한 자연환경은 각종대
회의 우승 단골 손님이다.
올 시즌 광주생활체육리그 2부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고,
2007·2008·2009년에도 우승팀이 됐다. 승리의 비결은 준비와 마음
가짐이다. 경기 전에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하며 경기를 준비하고 있
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라운드에 오르고 있다.
1번부터 7번까지 이어지는 다이내믹 타선도 이들의 장점. 잘
짜여진 타순과 함께 든든한 안방마음이 지키고 있다. 일요일 경기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포수 정상현은 전국대회 경험과 함께 노련
한 리드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힘있는 포지션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부자 야구인’ 투수 서재근
도 자연환경의 필승카드다. 서씨의 아들도 수장초 야구부로 그라운
드를 누비고 있다.
▲감독 : 백규식 ▲총무 : 박철준 ▲코치 유진우 ▲선수 : 류영
광, 최용희, 정상현, 박경중, 김동수, 서재근, 김광수, 조훈중, 박성호,
김정욱, 김기동, 김지우, 양진우, 최병환, 조준오, 김영권, 오창호

지왕리그 (디스크스 vs 세한기업재규어스)



우여곡절 결승진출 “우승보다 즐기는 야구”

디스크스(대표 안종문)
“우승도 좋지만 야구 자체를 즐기며 회원들과의 즐거운 결승무대
를 연출하겠다.”
지난해 인왕리그 준우승팀 디스크스가 이번 대회에서는 지왕리그
우승에 도전한다.
돈독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결승까지 올랐지만 이들의 목표는 우
승보다는 즐거운 야구다. 그라운드에서 함께한다는 자체로도 이들
은 충분히 우승팀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한 차례 실격패의 위기를
닫고 얻은 결승 티켓이라 더 의미가 있다.
디스크스는 상무 카오디오와의 8강전 때 주전 선수 4명이 신분증
을 가지고 오지 않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들이 신분증을 챙겨오는
동안 긴급하게 9명을 채워 경기를 치르느라 고전을 겪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올라온 결승에서 서로를 아끼고 매너있는 경
기를 하면서 사회인 야구의 묘미를 만끽하겠다는 게 디스크스의 각
오다. 김우석·이상범 두 투수로 마운드를 운영할 예정이며, 빠르고
수비가 좋은 중견수 김용희가 주목할 만한 선수다.
▲감독 : 안종문 ▲감독 : 노승기 ▲선수 : 안승평, 이치현, 김
용희, 송승용, 노성근, 전훈, 서상익, 이상범, 육경완, 김성현, 김남훈,
류경표, 서선대, 장인창, 김영태



탄탄한 기본기 안정된 전력 “2연패 자신”

세한기업 재규어스(대표 김치균, 정경국)
“이기는 야구가 즐거운 야구다. 탄탄한 기본기로 즐거운 야구를
하겠다.” ‘디펜딩 챔피언’ 재규어스가 타이틀 수성에 나선다. 올 시즌
우승은 물론 내년 시즌 3연패를 이루고 천왕리그에 진입하겠다는 게
이들의 각오다.
기본기가 이들의 가장 큰 장점.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 안정된 야
구,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본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부담감’만 덜고 재규어스의 야구를 한다면 목표로 한 챔피언
사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백구클럽과의 1회전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다. 미리보는 결승전
으로 꼽힐 만큼 전통의 강호 백구 클럽과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이들
은 김성주의 끝내기 안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2연패를 위한 행
진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승을 위한 비장의 무기도 준비했다. 무등기 승리를 이끌어왔던
투수 홍성준을 마무리로 배치하고 그동안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던
조커를 투입할 예정이다.
▲감독 : 김치균 ▲감독 : 정경국 ▲코치 : 국범석 ▲선수 : 김
승걸, 서승태, 김성주, 서승철, 윤계성, 박상진, 김민영, 문상준, 홍길
준, 김상선, 홍성준, 김용운, 박선열, 임현석, 김홍신, 오창욱



좌타자 군단 “챔프 자리 꼭 지키겠다”

아도니스(대표 정재훈)
“베테랑의 힘으로 대회 2연패를 이루겠다.”
아도니스가 무등기 두 번째 우승을 준비하고 있다. 든든한 투수진
과 좌타자들이 버티고 있는 아도니스의 무등기 목표는 당연히 우승
이었다.
아도니스는 10명의 투수를 보유하고 있고, 4명의 좌타자가 라인업
에 포진하고 있다. 노련함도 아도니스의 힘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5세. 젊은 팀에 비해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야
구에 대한 열정과 경력으로 이를 만회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함께 야
구를 해온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무기다.
삼호의료재단과의 8강이 결승에 가장 큰 고비였다. 초반 3점 차로
뒤지고 있던 아도니스는 8-4의 역전극을 펼치며 준결승에 올랐다.
스피드와 구위가 좋은 투수 천이두가 이번에도 아도니스 마운드를
수상한다. 올 시즌 청연한방병원과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이십
개 패를 기록했던 만큼 초반부터 공세를 펼치며 챔피언 자리를 지키
겠다는 각오다.
▲감독 : 정재훈 ▲선수 : 노경호, 신대섭, 이병관, 이선주, 박건,
박우현, 김철영, 임병호, 박병오, 최복열, 유창완, 주상익, 김재석, 설
진상, 김창집, 김귀성, 조정운, 김창환, 천이두



초보에서 베테랑까지 “실수 줄이면 우승”

청연한방병원야구단(대표 김중관)
“실수없는 야구로 정상에 오르겠다.”
20대부터 40대까지 또 사회인 야구 초보에서 10년차 베테랑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데 어우러졌다. 청연한방병원야구단이라는 이
름으로 똥심 치는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야구를 했
던, 마음이 꼭꼭 맞는 이들이다. 짧은 팀 역사에도 호남을 대표하는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다.
상대 아도니스는 잘 알고 있는 팀이다. 올 시즌에도 좋은 경기를
펼쳤던 만큼 자신감이 있다. 실수가 이들의 경계 대상. 실수없는 야
구, 출루중심의 야구로 마지막 승부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어렵게 준결승을 넘어 온 만큼 우승까지 노려보고 있다. 나이너스
와의 준결승에서 선취점을 내뒀던 청연한방병원은 실책 연발로 어
렵게 경기를 펼쳤다. 투수 조서원과 우익수 이봉운, 3루수 장상원이
이들의 기대주다. 중학교때까지 야구를 했던 조서원은 단단한 기본
기로 마운드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봉운·장상원도 10년이 넘게
사회인야구를 해온 베테랑이다.
▲감독 : 김중관 ▲선수 : 김형석, 이성열, 조서원, 천재홍, 이봉
운, 박성재, 장상원, 허용석, 하도남, 류영광, 노수영, 양성환, 김경준,
정승환, 김상민, 유진우, 이태현